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춘화(金春花)*

유홍녕(刘红宁)**

이상수(李相秀)***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B 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총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한국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적응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응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정서적응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만족도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정서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정서역량,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자기인식, 사회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 제 1 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제 2 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영역 등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유학생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3)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등으로 한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1만 2천여 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8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 유학생들의 꾸준한 증가는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교육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할 때 학업수행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 새로운 대인관계의 형성,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의내용의 이해 부족, 연구수행과 발표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대학생활 적응 문제로 호소하고 있다(공영태, 2005; 임수진, 한규석, 2009).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은 심리적,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그 결과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돌아가거나 이후에도 장기간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한식, 김정환, 2013).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삼화(2005)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 중 동일한 문화차이를 경험하고 문화적응 과정을 겪지만 일부 학생은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들이 축적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응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기성장과 자기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유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태도와 대처하는 개인적 역량에 따라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김소정, 송하나, 2011). 따라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개인적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높여주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적응 혹은 부적응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개인적 역량으로 사회정서역량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학교 부적응문제의 원인이 정서적 역량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강현숙, 2008; 이정선, 2012; 하영희, 2004). 또한 여러 연구들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증진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이정화, 2012; 정창우, 2013).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통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최근 학생의 성공에 있어서 사회정서

역량이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Goleman, 2006).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감정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Hughes & Terrell, 2007).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취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인간관계면에서도 조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정창우(2013)는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의 미래를 위해 사회정서역량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신현숙(2011)은 사회정서역량은 학생의 학교관련 태도와 행동 및 학업수행,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사회정서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각 문화마다 갖는 정서의 특수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서적 기술은 대학생활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부담이 많은 문제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이들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국내 유학생들 중 중국학생들에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2013)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외국인유학생의 약 60%에 이르는 5만 여명이 중국 유학생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국내 가장 대표적인 유학생 집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서역량

최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사회정서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정서역량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감정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Hughes & Terrell, 2007).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이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정서역량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p7)"으로 보고 있다.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를 통해 자기 주변의 환경 및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Elias (2009)는 사회정서역량의 5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인식(self-awareness)이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 정확한 자기지각을 하는 능력; 자신의 강점, 요구,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한다. 타인의 관점을 취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건강하고 적절한 존중을 포함한다. 셋째,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내적 자기조절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외현적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관리에는 충동조절, 스트레스 관리, 자기 동기화, 개인적 훈육(personal discipline),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넷째,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효과적이며 외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 의사소통, 사회적 교류, 협동, 타협, 갈등관리, 도움추구 및 도움제공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은 분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문제 확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평가,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의 적용, 다양한 대안의 평가,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의 발달을 포함한다.

기존의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학교부적응문제의 원인이 정서적 역량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강현숙, 2008; 이정선, 2012; 하영희, 2004). 또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정서발달과 학업수행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회정서적 기술에 결함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수행에 실패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Calkins, Anastopoulos, Keane, & Shelton, 2003; Martin, Drew, Gaddis, & Moseley, 1998). Gerald, Moshe, Richard, (2010)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로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하여 사회적응력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서적, 사회적 역량들은 조직 환경 내에서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은우(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교류함으로써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지현(2008)은 대학생활 동안 발생하는 내적·외적 어려움과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기를 통제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는 능력은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

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증진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이정화, 2012; 이지은, 2014). 따라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통해 사회적응이나 학교적응에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최근 학생의 성공에 있어서 사회정서역량이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고 있다.

2.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은 중등학교에서의 생활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되면서 대학생활 적응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rkoff, 1986). 즉 적응이란 한 개인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와 사회 배경이 다른 유학생들에게 대학적응은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Arkoff(1986)는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정의하고, Baker와 Siryk(1984)는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 즉 수업이나 시험 등의 구체적인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 적응의 정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외적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업적 적응이다. 학업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이다. 사회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이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활 만족도이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 발달상의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을 떠나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회적·정서적 문화와 환경, 외로움등과 같은 문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강의내용 이해나 연구수행 능력의 부족과 관계된 학업적인 영역, 심리·정서적 부적응,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공영태, 2005; 임수진,한규석, 2009). 이러한 학업적, 심리·정서적 문제는 2차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후에도 장기간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한식, 김정환,2013). 하지만 기존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어떤 이들은 위기의 상황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개인에게 위기를 딛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김삼화, 2005). 이렇게 유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동일할지라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태도와 대처방식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김소정, 송하나, 2011).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은 혼란, 회피, 극복-노력, 현실수용 총 4단계과정으로 나타났는데, 혼란단계에서는 적응을 방해하는 개인-부정적 장애물을 사용함과 동시에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회피단계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극복-노력단계와 현실수용단계에서는 개인-긍정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적응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는 문화적응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이 필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2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183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 > 연구대상

대학		A	B	C	D	총
성별	남	27	17	9	16	69
	여	49	27	24	14	114
	총	76	44	33	30	183
대학급	어학원	5	6	3	7	21
	대학	35	20	19	18	91
	대학원	36	18	11	5	71
	총	76	44	33	30	183

2. 측정도구

설문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정서역량

본 연구에서는 Petrides과 Furnham(2006)이 제작한 사회정서검사도구 TEIQue1.5의 단축형으로 런던대학의 교육 연구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번안되어진 사회정서검사 척도를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초의 TEIQue-SF는 주관적 안녕감(well beings), 자기-통제(self-control), 정서성(Emotionality), 사회성(Sociability)등의 4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위척도별로 측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성이나 사회성척도, 자기-통제 측정 내용에 자기인식(self-awareness), 사회인식(social awareness) 또는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역량 중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제외한 4가지 역량인 자기인식(self-awareness), 사회인식(social 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와 주관적 안녕감(well beings)을 포함한 5개 하위변인으로 재분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자기 보고형 7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척도문항 중 2번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종종 이해하지 못 한다', 4번 '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 한다'와 같은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3이고 .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정서역량 척도의 특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배열	신뢰도
자기인식	6	1,3,7*,8*,16*,23	.812
사회인식	4	2*,13*,17,29	.850
자기관리	7	4*,14*,15,18*,19,22*,30	.816
관계관리	7	6,10*,11,21,25*,26*,28*	.819
주관적 안녕감	6	5*,9,12*,20,24,27,	.797
사회정서전체	30		.753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산

2)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9)에 의해 개발되고 손교교 (2012)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진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자기 보고형 5점 척도이며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네 가지 하위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업적 적응 척도는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수업, 시험)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 척도는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대인 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서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 척도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만족도는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로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문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 중 33번"나는 같은 방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해당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마십시오)"는 조사대상의 형평성을 위해서 삭제하여 총6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719로 나타났다. 각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특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배열	신뢰도
학업적적응	2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	.811
사회적적응	11	22*,23*,24*,25*,26*,27,28*,29,30,31*,32*	.804
개인-정서적적응	17	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 48*,49	.868
대학만족도	17	50*,51*,52*,53*,54*,55*,56,57,58*,59,60*,61,62, 63,64,65,66*	.792
전체	66		.719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정서역량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V. 결과 및 분석

1. 기술통계 분석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전체 평균은 3.15(SD=.365)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응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들의 평균점수가 5점 척도 하에서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전체 평균은 4.08(SD=.505)이었으며,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인 사회인식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들의 평균점수가 7점 척도 하에서 4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분석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학업적응											
2.사회적응	.468**										
3.개인정서적응	.353**	.305**									
4.대학만족도	.491**	.607**	.383**								
5.대학적응전체	.721**	.761**	.751**	.781**							
6.자기인식	.202**	.338**	.405**	.412**	.462**						
7.사회인식	.130	.071	.372**	.199**	.280**	.368**					
8.자기관리	.285**	.298**	.194**	.422**	.379**	.421**	.227**				
9.관계관리	.259**	.369**	.120	.356**	.344**	.393**	.179*	.480**			
10.주관적안녕감	.333**	.407**	.267**	.432**	.464**	.537**	.336**	.491**	.531**		
11.사회정서전체	.326**	.408**	.393**	.503**	.538**	.796**	.601**	.700**	.706**	.782**	
평균	3.18	3.26	2.95	3.22	3.15	4.31	3.34	4.24	4.28	4.23	4.08
표준편차	.399	.481	.656	.401	.365	.905	.729	.602	.701	.575	.505
최소값	2.00	1.91	1.24	2.18	2.06	2.00	1.50	1.83	1.67	2.60	2.39
최대값	4.48	4.36	4.76	4.59	4.40	7.00	5.25	6.00	6.00	5.60	5.15
왜도	.351	-.111	-.115	.537	.465	.036	-.290	-.227	-.104	.126	-.369
첨도	.964	-.414	.159	.689	1.248	.298	-.238	1.787	.841	-.008	.748

* $p < .05$, ** $p < .01$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역량은 대학생활 적응($r=.538$, $p < .01$)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사회인식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변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071 < r_s < .796$, $p < .05$).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 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정서역량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의 공차한계(Tolerance) 허용값은 .626-.864로 공차가 0.1을 초과하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57-1.596사이로 $VIF < 10$ 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공차의 값이 .1이하이거나 VIF 값이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석우, 2010).

1)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 자기관리, 관계 관리를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전체를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 값은 34.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 < .00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beta = .303$, $p < .0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인식($\beta = .299$, $p < .001$)이 대학생활 적응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192	.048	.303	4.04***
자기인식	.120	.030	.299	3.98***
$F = 34.75^{***}$, $R^2 = .28$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 자기인식, 관계관리를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학업적응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 값은 13.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 < .001$).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beta = .255$, $p < .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관리($\beta = .159$, $p < .05$)가 학업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177	.055	.255	3.20**
자기관리	.106	.053	.159	2.00*

$F= 13.51^{***}$, $R2 =.13$

* $p<.05$, ** $p<.01$, *** $p<.001$

3) 사회정서역량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 자기관리, 자기인식을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관리가 사회적응을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값은 22.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beta=.293$, $p<.0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계관리($\beta=.213$, $p<.01$)이 사회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관리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정서역량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245	.066	.293	3.72***
관계관리	.146	.054	.213	2.70**

$F=22.21^{***}$ $R2 =.45$

* $p<.05$, ** $p<.01$, *** $p<.001$

4) 사회정서역량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자기관리, 관계관리, 주관적 안녕감을 제외하고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이 개인-정서적응을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 값은 25.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

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인식($\beta=.310, p<.0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인식($\beta=.257, p<.001$)이 개인-정서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이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자기인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정서역량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자기인식	.225	.051	.310	4.39***
사회인식	.231	.064	.257	3.64***
$F=25.60^{***}, R2 =.22$				

* $p<.05$, ** $p<.01$, *** $p<.001$

5) 사회정서역량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과 관계관리를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이 대학만족도를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 값은 22.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beta=.209, p<.05$)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관리($\beta=.235, p<.01$), 자기인식($\beta=.200, p<.05$)이 대학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이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사회정서역량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146	.056	.209	2.69*
자기관리	.157	.050	.235	3.14**
자기인식	.089	.034	.200	2.59*
$F=22.34^{***}, R2 =.27$				

* $p<.05$, ** $p<.01$, *** $p<.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희숙, 2006; 최지현, 2008; 노수임, 배성아,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어떤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자기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하지만 대학생활 적응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조금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먼저 학업적응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순서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관리란 내적 자기조절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외현적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충동조절, 스트레스 관리, 자기 동기화, 개인적 훈육, 적절한 목표를 수립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는 능력 등이 포함한다(Elias, 2009). 따라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적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감정과 자기동기화 그리고 목표관리 등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미영(2001)의 자기관리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과제수행 등 학업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연구와 김선화(2012)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적고 따라서 학업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관적 안녕감, 관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은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학업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관계관리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 능력이 직장과 학교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적응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송정애, 장정순(2010)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인-정서적응에서는 사회정서 역량의 하위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기인식, 사회인식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은 일반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통제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적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

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타인의 감정 역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대학만족도에서는 사회적 역량의 하위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만족도란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이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속한 한국 대학에 대한 애착과 호감을 갖고 다른 학생들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대학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국내 연구(이은우, 2005) 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은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유학생들이 최근 들어 많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사회정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 적응의 구체적인 하위변인들에 따라서는 조금은 상이한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사회정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 영역을 먼저 진단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형태로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유학생들 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문제를 보일 경우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 간의 차이와 집단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 유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문화적 맥락에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정서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현장 적용 연구가 뒤 따른다면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전략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숙(2008). 잠재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 사회적지지,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공영태(2005).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고찰. **일본학회**, 62, 267-282.
- 교육과학기술부(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www.moe.go.kr/web/110503/ko/board/view.do?bbsId=350&boardSeq=50887>
 (2014. 09. 15)
- 김귀성, 황지인(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29, 1-25.
- 김삼화(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석우(201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AMOS 활용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선아(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17, 57-68.
- 김선화(2012).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김선남(2007).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조화와 균형**, 29-46.
- 김소정, 송하나(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요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8(2), 219-234.
- 김희숙(2006). 정서조절 양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176-201.
- 노수림, 배성아(2014). 대학생의 정서지능, 학습몰입,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4(2), 343-362.
- 문한식, 김정환(2013). 재호 여학생들의 유학생생활 부적응에 따른 스포츠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 자아 존중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학회**, 18(1), 29-52.
- 민미영(2001). 자기관리전략이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공부하기 기술 수행과 읽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백지숙(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손경원, 이인재(2009). 청소년 이탈행동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19, 169-200.
- 손교교(2012).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송정애, 장정순(2010).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1), 119-144.
- 신현숙(2011). 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8(2), 175-197.
- 이미라(2005). 대학조직의 감성역량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발전논총**, 26(2), 155-170.
- 이은우(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익수, 지봉구(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437-454.
- 이인재, 손경원, 지준호, 한성구(2010). 초등학교들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31, 49-80.
- 이정선(201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조절 양식 및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이정화(2012). 중·고등학생의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표현활동 무용수업 모형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1(1), 397-410.
- 이채식(201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 임수진, 한규석(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 6(3), 413-427.
- 정창우(2013).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38, 153-172.
- 최지현(2008).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하영희(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Arkoff, A. (1968).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Elias, M. J. (2009). Social-emotional and character development and academics as a dual focus of educational policy. *Education Policy*, 23(6), 831-846.
- Gerald M., Moshe Z., Richard D. R. (2010). 문용린, 곽윤정, 강민수, 최경아 역.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Emotional Intelligence]. 서울: 학지사.
- Goleman, D. (2006). *Social Intelligence barockaman* Inc:장석훈(옮김). SQ 사회지능.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Howse, R., Calkins, S., Anastopoulos, A., Keane, S., & Shelton, T. (2003). Regulatory contributors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4*, 101-119.
- Hughes, M. M., & Terrell, J. B. (2007). *The emotionally intelligent team* San Francisco: Jossey-Bass.
- Petrides, K. V. & Furnham, A. (2006). The role of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in a gender-specific model of organizational variables. Retrieved from <http://www.psychometriclab.com/Default.aspx?Content=Page&id=14>
- Martin, R., Drew, K., Gaddis, L., & Moseley, M. (1998).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achievement from preschool temperament: Three stud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7*, 125-137.
- Merrell, K. M., & Gueldner, B. A. (2011). 신현숙 역. 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촉진[*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서울: 교육과학사.
- Zins, J. E., Weissberg, R. P., Wang, M. C., & Walberg, H. J. (2004). *Building school success through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논문접수 2014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12월 12일 / 2차 심사 2015년 2월 2일 / 게재승인 2015년 3월 6일

* 김춘화: 중국 연변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chglgh@hanmail.net

* 유흥녕: 경성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hongning0103@gmail.com

* 이상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oolee@pusan.ac.kr

Abstract

The Influence of Chinese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Korea

Jin, Chunhua*
Liu, Hongning**
Lee, Sangsoo***

As globalizing, there are more and more foreign students in Korea. In particular, the Chinese students become a large part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nese student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in Korea.

For this we conducted a survey on 205 students of four universities in a metropolitan city, Korea. This survey consisted of two parts: The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Short Form (TEIQue-SF)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nese student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and the college life adaptation in Korea. Second, the Well-being and Self-awareness have influence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Third, the Self-management and the Well-being have an impact on the Academic Adjustment. Fourth, the Well being and Relationship management have an impact on the Social Adjustment. Fifth, the Self-awareness and the Social-awareness have an impact on the Personal-Adjustment. Sixth, the Well being and the Self-awareness and Self-management have an impact on the University-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boost the better development of Chinese students' college life. The social emotional competence related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Key word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awareness, Social-awareness, Self-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 First author, Ph.D Candida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